

‘시험지 아줌마서 기초의원으로...’ 홍미영씨 수기 <1>

이번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는 지역주민 추대로 참신한 동네일꾼 후보들이 소수나마 출마, 당선돼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싹을 틔운 것으로 평가받았다. 인천시 북구 십정동 산동네에서 일일공부 학습지를 돌리며 맞벌이부부를 위한 공부방을 운영해온 홍미영(37)씨는 동네 꼬마들·주부·마을청년·교회 등 지역주민들의 절대적 지지 속에 출마, 기초의원이 됐다. 곧 다가올 광역의회 선거에는 여성을 비롯해 더 많은 참일꾼들이 진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홍미영씨의 첫 선거운동 경험을 몇차례 나누어 싣는다. <편집자주>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고 떠들석할 즈음 주위에서 출마를 권유했다. 평소 내가 살고 있는 인천시 북구 십정동 산동네에 널리 있는 쓰

둥원들은 나를 감동시켰다. 선거운동원 대부분이 20·30대 청년층이어서 패기넘친 반면 폭넓은 주민층과의 만남에는 약점이라는 지적을 듣고 있

동시킨 것은 아이들이었다. “엄마가 몹시 바빠질텐데 참고 도와줄 수 있겠니?” 조심스런 내 질문에 “엄마도 아빠처럼 보약 먹어야겠네”로 답했다. 그 길로 뛰어나간 아이들이 세 배돈으로 사다준 종합비타민제 한통은 천군만마보다 더 든든한 응원부대였다.

3월8일 선거일이 공고되자마자 동네 주민 60여명의 서명을 받아 후보등록을 마치고 13일 오후 5시30분 기초추천장에 나갔다. 인천시 북구 55명의 후보자 가운데 여성은 나 혼자뿐이었다. 선거 설명회 때 드문

산동네 생활문제들이 출마동기

레기를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심했지만 막상 정치판과 선거판에 뛰어들다는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제 갓 사춘기 중학생이 되는 큰딸 보미(14)에게 엄마의 바깥활동이 안겨줄 부담이 걱정이었다. 6년 전 보미가 국민학교에 입학할 무렵에도 썩 방향을 찾아 인천의 대표적 달동네인 이곳으로 이사 와 해님놀이방과 공부방을 연다며 정신없이 뛰어 다니느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고심 끝에 그동안 함께 일해온 동네 주부모임 해님여성회와 회장을 맡고 있는 인천지역

단중 평소 연륜과 넉넉한 인품으로 존경받는 ‘열우물 주민자치연대모임’ 대표인 소성교회 김상목 목사님이 기꺼이 선거 사무장을 맡아주신 것도 큰 행운이었다.

그러나 ‘발등의 불’이 되고 보니 정작 내 고민은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워낙 보잘 것 없는 살림이지만 아무래도 엉망일 수밖에 없는 집안 꼴을 보면서



“집안일 돌보라...” 감감...시부모 격려에 힘솟아

주민회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회원들은 “주민 자치활동의 장을 넓히고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면서 적극 출마를 권유했다.

3월5일, 수서비리를 모면하기 위한 정략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자체를 거부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우리 동네 일을 위해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될 중요한 기회”라는 의견이 우세해 출마의사를 굳히고 선거준비에 들어갔다.

해님놀이방 교사, 해님여성회의 어머니들, 인천주민회, 열우물주민자치연대모임,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회 회원들 20여명이 자원봉사 선거운동원으로 앞장섰다. 선거사무실은 동네 입구에 있는 쉼터도서관을 본부로 하고, 해님놀이방과 우리집도 개방하기도 했다. 총무를 맡은 김성태씨는 회사에 한달 동안 휴직계를 내고 자기가 쓰던 팩시밀리와 전화를 기증했으며, 가게를 인수하고도 개업을 미루고 취직이 됐는데 출근을 2주일 동안 연기한 상근 운

이때처럼 내가 여성이자, 주부이고, 어머니란 사실이 ‘굴레’임을 절감한 적이 없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파출부를 둘 수도 없고 집안일 때문에 지긋지긋 지켜온 사회인으로서의 내 소신과 역할을 포기해야 하나... 너무 힘들고 억울해 남편과 두 딸 앞에서 엉엉울기도 했다.

우리집·친정·시댁에서 각각 가족회의가 열렸다. 처음부터 “말리진 않았지만 도와줄 수는 없다”던 남편은 아침마다 직접 와이셔츠를 다려입고, 휴일에 차를 제공하겠다는 ‘선심’을 보였다. 일간신문사의 광고국 간부인 남편은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할 만큼 바쁜 것도 사실이었지만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다. 당연히 말리실 줄로 알았던 시부모님의 “가진 것 없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걱정과 함께 “잘 해보라”는 격려의 말은 정말이지 힘이 솟게 만들었다. 친정에서는 시집간 여동생들 ‘임시 파출부’로 파견해줘 눈물겨웠다. 누구보다 나를 감

드문 눈에 띄던 여성들이 모두 포기해 버린 모양이었다. 같은 동네에 출마한 4명의 남성후보들은 나를 모른체함으로써 무시하려는 태도가 역력했다. 한 50대 남성후보는 방법 선도, 새마을운동 등 자기가 워낙 동네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스스로 물러나 이미 무투표로 당선됐다고 으스스하면서 “그런데 이준마는 여기 왜 왔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가 권위로 똘똘 뭉친 근엄한 표정이었다. “맥 빠진다. 전혀 즐겁지 않은 일에 내가 왜 나섰을까. 한심하다. 당선이 된다 해도 이들 틈에서 어떻게 함께 숨쉬며 의정을 꾸릴 수 있을까...”

담담한 심정을 종이에 고적하던 나는 ‘기호 1번 홍미영’이란 발표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났다. ‘꼭 당선돼서 그 lofty 한 행정의 문턱을 밟아야지.’

나는 낙서장 쪽지를 힘껏 구겨쥐고 당당히 추천장을 걸어 나왔다.